

대외기관 회의 참석 보고서

회의명	IMHE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일 시: 2012. 09. 20-21 (화, 수) 장 소: OECD, Paris, France
참 석 자	황대준 사무총장, Fabrice Henard OECD분석전문가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 400여명 참석
주요안건	1. 대학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중심으로 기조강연 및 주제 강연과 Round table 참석 2.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주요국의 사례 소개 3. OECD AHELO 평가시스템 운영 현황
회의내용 요약	
<p>1. 대학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중심으로 기조강연 및 주제 강연과 Round table 참석</p> <p>1) Massification 이슈: 증가되고 있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Abu Dabi, 중국, 영국, 인도, 호주 및 미국의 사례 발표, 특히 인도와 중국의 대학졸업 노동 인력의 불일치 현상 해소에 따른 고등교육 시장 개척에 외국 우수대학들의 관심이 높음.</p> <p>(시사점) 국가의 제한된 역할과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로 구분해서 추진 필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조직 설립을 통한 체계적 지원 (호주), 대학의 역량과 양질의 고등교육서비스 제공 노력 (중국의 해외대학과 공동학위 수여), 아부다비의 외국대학의 캠퍼스 또는 분교 형태운영</p> <p>2) Diversification과 자율성: 교육서비스 전달 기술, 다양한 교육서비스 개발과 획일화된 교육성과 평가와의 상충되는 문제점 조명, 대학의 글로벌 순위평가에 따른 영향으로 대학의 기능이 연구중심으로 균형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함. 따라서 대학은 설립 이념과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 교육,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는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고양을 통한 대학의 질 높은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p>	

회의내용 요약

2. 대학의 국제화 사례 소개

고등교육 질 관리와 외국학위에 대한 상호 인정문제에 대한 국가 간, 대학 간에도 이견이 매우 큰 상태로서 UNESCO APEC 지역의 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와 같은 접근 방법이 현황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보다는 각국 또는 각 대학의 국제화 사례 발표를 통한 경험을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었음. 특히 한국의 20만명의 Inbound 학생유치 (2020년)와 Inbound-outbound 유학생 수의 차이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과 경제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브라질, 인도 중국의 국제화 및 유학생 파견 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브라질은 년 10만 명의 대학생을 해외 전략국가에 파견함으로써 국가 미래 동력으로 육성할 전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대학졸업자 이상의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부문의 불일치를 해소해야하는 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 -> 선진국들의 적극적 진출을 위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대학단위 벤치마킹 실시

3. OECD AHELO 평가시스템 운영 현황

- AHELO 평가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 Pilot test에 참여한 멕시코의 사례 발표: 대학의 인식변화 유도에 긍정적,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질 관리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관심 증대 -> 멕시코의 경우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